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형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혐오와 농단

앞에서 일단 ‘미소지니’라고 먼저 쓰고 ‘여성혐오’를 괄호 안에 넣은 것은 이 번역이 자체가 최선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서다. “근대에 이르러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여성이 배척된 원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미소지니의 구조적 측면이 이 용어 [여성혐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김신현경) 핵심은 ‘구조적 혐오’에 있는데 그보다 ‘개인적 혐오’의 충위를 먼저 떠올리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남성들로 하여금 ‘나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라는 개인적 충위의 반론을 제기하게 만드는 면도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말을 어떻게 바꿔도 이해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지만 말이다.

말에는, 이참에 ‘혐오’라는 말 자체의 근본적 의미를, 이를테면 애초 ‘혐오’라는 감정 자체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만은 아니라 ‘구조’에 의해 습득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롭게 성찰해 보기 위해서라도, 번역어를 교체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번역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나쁠 것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속해 있는 세대의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은 낯선 답론이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관심과 긴장의 끈을 놓고 살아왔다는 반성을 시작한 남성들이 많아 보이며, 부끄럽지만 나도 거기에 속한다.

한편 ‘국정농단’에서 ‘농단’이라는 말이 짐작과는 달리 ‘희롱’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나오지만 나도 거기에 속한다. 한편 ‘국정농단’에서 ‘농단’이라는 말이 짐작과는 달리 ‘희롱’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나오지만 나도 거기에 속한다. 한편 ‘국정농단’에서 ‘농단’이라는 말이 짐작과는 달리 ‘희롱’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나오지만 나도 거기에 속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과 그 비선 측근이 대한민국의 최정상에서 그들의 이익을 저울질하느라 국정을 망가뜨렸다는 점에 있으니, ‘게이트’보다는 ‘농단’이 더 정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들뿐이겠는가. 최정승 농단을 차지한

이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부근 어디쯤에서 특혜를 누리 온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다수의 당사자들에게 부끄러움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선택받은 소수’인 자신들에게 따르는 당연한 보상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타고난 약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혜택 앞에서 서서히 자기 성찰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라면 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혐오’에 대해서나 ‘농단’에 대해서나 내가 이야기의 끝에 자꾸 ‘나’를 주어로 삼은 문장을 써 보고 하는 것은 의례적인 반성적 제스처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면죄부를 발송·수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다. 위 두 사안 사이에는 차이점이 훨씬 많지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안에서 성찰적 긴장을 잃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공통점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40대 이상의 남성이 여하한 구조적 폭력(혐오와 농단)의 주체가 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필사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다.

종교칼럼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지만 생로병사의 순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진리를 향한 마음의 서원을 쉬지 않고 그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밭에서 언 배추는 날씨가 풀리면 그 배추로 김장을 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사온 배추가 얼면 그 배추로는 김장을 하지 못합니다. 밭에서 얼면 땅의 자생능력이 있어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 장 남은 달력에서 우리는 인생의 달력을 발견하고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가져옵니다.

1969년 미국 스탠포드대학 심리학과의 필립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상대가 비슷한 자동차 2대를 방치했습니다. 한 대는 보닛을 열어 두었고,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어두지 않았고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두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자 두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로 변했습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 간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습다. 보닛을 열고 유리창을 파

손시켜둔 자동차는 방치된 지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하루 만에 네 바퀴의 휠과 타이어를 빼갔으며 의자 시트까지 없어졌습니다. 연이어 자동차에 낙서와 파괴, 쓰레기 투기, 방화 등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단지 유리창이 조금 깨져져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차이는 전혀 달랐습니까? 하는 화두를 가져옵니다.

뉴욕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켄의 도시 뉴욕시는 치안대책으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활용해 청소와 낙서 지우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의 지하철 범죄 건수가 5년 만에 75% 감소했습니다. 청소와 주변 환경의 개선으로 뉴욕시는 범죄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마침내 범죄도시의 오명을 벗었습니다.

큰 스승이 제자를 기를 때 오랫동안 정소만 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 공부가 큰 공부일수록 정소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정소하던 과정에서 파도

치던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가라앉아 고요하게 정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성이 정화되어 큰 공부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은 국민이 밝힌 촛불의 불빛은 대한민국을 가득 채우고 그 불빛이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전지의 기운이 서로 통째져 있는 통로를 따라 우주까지 파급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촛불이 내 마음으로 향해야 합니다. 더 큰 촛불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도록 한 가지 화두를 던집니다.

“그분(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복음 5장45, 48절)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완전한 살생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이니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르리라.”

기 고



강선태 새강고등학교 교장

‘키팅 선생님’의 말을 되새기며

하지만, 이제 수능이 끝났다. 그동안 포기했던 많은 것들을 되찾고 누리며 생활하기를 바란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누비며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셔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경험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 해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주말엔 늘어지게 늦잠을 자보기도 하고 운전면허 따기, 가족과 여행, 악기 배우기 등 평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수능이 끝난 이후 수험생들이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다. 겨울이라는 계절과 함께 찾아오는 게으름이 그것이다. 평소와 비해 훨씬 짧은 시간과 자유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집 안에서만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 가장 여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그대로 허비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작은 일이라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다.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짠 계획을 달성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이 클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동력이 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고 싶은 것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대학 생활은 지금까지 학창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공부와 조금은 수동적이고 경쟁적인 것이었다면 대학에서의 공부는 스스로 연구하여 지식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공부, 학우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인간관계 공부라 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능력을 기워 원만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빨리 결정하고 정시 입시를 대비해야 한다. 물론 모든 수험생들이 본인 스스로 만족할만한 수능 점수를 얻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는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이번 겨울,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스스로 발로 뛰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각 대학들은 입시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있고 가군, 나군, 다군에 따라 필요한 제출 서류, 날짜, 면접 등이 달라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해당 대학 총장도 자신의 대학 입시 유형을 다 모를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각 대학의 홈페이지나 입학처를 찾아 정보를 알아내고 아울러 학교 선생님들과 꼭 조언을 구하기도 하자.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 수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실 것이다.

이제 그 3 수험생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 이끌어 나갈 미래의 인재들이 되기 위한 시작점에 서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창조적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현실에만 얽매어 움크리지 말고 때로는 툭툭히 의외의 행동으로 세상에 대해 크게 소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자.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관철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커다란 성취감과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社說

5·18 헬기 기총소사 36년 만에 밝혀지나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운용한 헬기에서 시민들을 향해 기총소사(機銃掃射 : 비행기에서 목표물을 비로 쓸어 내듯이 기관총으로 쏘는 일)를 한 사실이 36년 만에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금남로 1-1번지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기총소사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전일빌딩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에 대한 조사와 감식을 통해 “방향이나 각도 등을 고려할 때 공중에 떠 있는 헬기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10층에서 발견된 수십 발의 탄환 자국은 헬기 사격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흔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옛 전남도청 광장, 본수대에서 쫓겨 온 시민들이 계엄군을 피해 몸을 숨겼던 곳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한결같이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지만 광주에서는 5·18 직후부터 목

격담과 증언이 쏟아졌다. 지난 36년간 결정적 물증이 없어 군 당국 주장을 뒤엎지 못했을 뿐 계엄군 헬기 사격은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고 조비오 신부님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확히 1980년 5월 21일 낮 1시 반부터 2시 반 사이 호남동 성당 주변 상공에서 ‘드르르, 드르르’소리가 났고, 공중에서도 발포한(불빛과) 소리가 들렸다”고 수차례 증언했다. 1980년 5월 선교사로 광주에 있었던 미국인 피터슨 목사도 지난 1994년 펴낸 책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했다. 그럼에도 군 당국이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인정할 경우 자위권 발동이라는 것의 발표 이유가 모두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국과수는 앞으로 기총(기관총)소사인지 소총 사격인지 채증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려낼 계획이라는 데 특히 기총소사의 경우 무차별 ‘난사’ 의미가 강한 만큼 명확히 구별해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앞으로 전일빌딩 리모델링 설계에 총탄 흔적 보존 방안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대책 없이 해 넘기는 광주·전남 현안 사업

광주·전남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광주시에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 방안 등이 대표적인 미제(未濟) 사업이다.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광주시가 229억 원을 보자 측에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행하는 것은 특혜라고 시민단체가 반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올해 폐쇄되는 상무소각장 활용 사업의 경우 광주시가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커뮤니티 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부지 확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난제가 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포물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조직위원회와 주관사인 FOM의 위약금 협상 문제가 난제다. FOM 측은 지난 2015년 한국 대회무입, 상무소각장 폐쇄 후 활용 방안 등이 대표적인 미제(未濟) 사업이다.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광주시가 229억 원을 보자 측에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행하는 것은 특혜라고 시민단체가 반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올해 폐쇄되는 상무소각장 활용 사업의 경우 광주시가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커뮤니티 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부지 확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난제가 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포물리원(F1) 코리아

無等鼓

혁명의 불길에 뜨겁게 타오르던 1792년 8월, 프랑스 민중은 벨리리왕 궁을 습격, 왕 루이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체포한 뒤 ‘왕권 정지’를 선언했다. 가족과 함께 탕플 탑에 갇혀 있던 왕은 16 달 후인 12월 11일 국민 공회에 출두, 만장일치 ‘유죄’판결을 받았다. 왕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투표에서는 ‘361대 319’로 사형이 결정됐고, 지켜보던 관중은 열광했다.

이듬해 1월 21일, 왕은 ‘혁명광장’(현 재의 콩코드 광장)에 세워진 길로틴(단두대)으로 끌려나

루이16세 처형

왔다. 손이 뒤로 묶인 왕은 “국민이여,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요란한 함성에 묻혀 버렸다. 군중이 “공화국 만세”를 연호하는 동안 길로틴의 칼날이 세차게 내려왔고, 왕의 목은 몸에서 분리됐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루이16세의 머리와 함께 ‘왕’이라는 절대권력은 소멸했다. 루이16세 처형은 단순한 ‘왕의 죽음’을 뛰어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왕은 백성에 손에 의해, 처벌의 형태로 살해됐다. 누추한 몸을 가지고 있던 ‘절대권력’이라는 화려한 망토가 성난 국민에 의해 벗겨져 버린 이 사건은 왕정

체제를 유지하던 유럽 전역의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왕들은 자신에게도 루이 16세와 같은 ‘파멸의 운명’이 닥치는 것을 막고, 유럽 전역에 프랑스 혁명 정신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히 연합해 프랑스를 침공한다.

하지만 한 번 군주의 피를 맞본 국민은 ‘국가의 주인은 우리’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후의 역사가 보여 주듯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절대 군주제’는 세계사의 전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지난 9월 우리 국왕은 “국민이여,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요란한 함성에 묻혀 버렸다. 군중이 “공화국 만세”를 연호하는 동안 길로틴의 칼날이 세차게 내려왔고, 왕의 목은 몸에서 분리됐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루이16세의 머리와 함께 ‘왕’이라는 절대권력은 소멸했다. 루이16세 처형은 단순한 ‘왕의 죽음’을 뛰어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왕은 백성에 손에 의해, 처벌의 형태로 살해됐다. 누추한 몸을 가지고 있던 ‘절대권력’이라는 화려한 망토가 성난 국민에 의해 벗겨져 버린 이 사건은 왕정

/홍해기 사회1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